

몸으로 습득한 침구명의 공궤 내 침의로 천거

침뜸 역할 커져 침의청 설치 ... 「내침의 선생안」엔 최고 실력자들 수두룩

허임의 침구경험방 첫 판본(1644)이 나온지 7년 뒤인 효종 2년(1651)에 내의원 부속청으로 침의청이 설치되었다. 당대 내노라 하는 최고의 침구 실력자들이 침의청으로 모이게 되면서 침의 전성시대가 열렸다.

조선 세조 때부터 내의원에 근무한 의원의 명단이 「태의원 선생안」 「내침의 선생안」 「의약동참 선생안」에 수록되어 있는데 「내침의 선생안」에는 202명의 내침의가 기록되어 있다.

이들 중 대다수는 의원과거시험을 거치지 않고 침구로 이름이 나서 천거되어 내의원 침의가 된 사람들이었다. 대부분 과거시험을 거쳐 내의원에 발탁된 「태의원 선생안」 387명의 내의원과는 정반대의

양상이다.

이는 민간에서 오랜 임상 경험을 통해 몸으로 습득하는 것을 중시하는 침구술의 특징 때문이다.

의서를 몰라도 실생활에서 치료를 통해 그 치료 효과를 인정받은 이들은 과거 시험을 거치지 않고도 선발이 가능했던 것이다.

성종이후 침구의(鍼灸醫) 제도의 정착과 침구술의 발전은 이후 조선시대 침뜸이 나라밖에서도 으뜸으로 칭송되는 밑거름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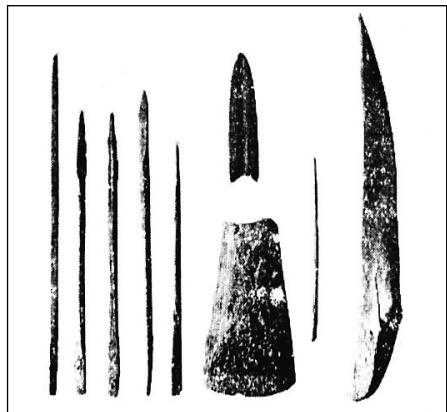
침구의를 따로 선발하는 제도는 경국대전을 보완하며 나온 조선의 법전인 1746년의 속대전과 1785년의 대전통편, 1865년의 대전회통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창덕궁의 내의원 전경

침구의술 고대사

돌침 · 쏙뜸 선사시대부터 ‘민족의술’



석기시대 유물 돌침 · 돌화살촉 · 돌도끼 · 골침 등(함경북도 웅기면 송평동 유적 출토)

침뜸은 어디에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 해답은 동양의학의 경전인 황제내경에서 찾을 수 있다.

“동쪽 지역은 천지가 시작되는 곳으로 생선과 소금이 생산되는 지역이며 바다를 끼고 있다. 그곳 사람들은 물고기를 주로 먹고 찐 것을 좋아하는데 ... 모두 피부가 검고 주리가 성글며 그들에게 발생하는 병은 대부분 양양인데 그것을 치료할 때는 펌석(돌침)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므로 펌석은 동방에서 전래되었다.”

펌석은 돌로 만들어진 원시시대 침이다. 신석기시대 돌을 갈아 정교한 침을 만드는 기술을 터득하여 전문적인 의료기구인 펌석을 생산해 냈다. 바로 이 펌석의 주요 생산지가 바로 조선이라는 이야기다.

“북방자는 ... 장이 차가워서 창만병이

잘 발생하는데 이를 치료하는 데는 쏙뜸이 마땅하다. 그러므로 쏙뜸 요법은 북방에서 전래되었다.”

여기 말하는 펌석 즉, 돌침은 중국의 동부 연안 일대에서 어업을 위주로 하는 민족에게서 유래되었고, 쏙뜸은 중국의 북부에서 목축을 위주로 하는 민족에게서 유래되었다. 한반도와 몽고 일대를 지칭한 것이다. 결국 침뜸은 중국 본토보다는 동방과 북방 지역에서 먼저 사용되었다는 것. 문자로 기록되면서 중국 의학으로 발전한 것이다.

수천만년 내려온 자연치유법

북부지역은 날씨가 매섭고 혹독하여 선사시대 사람들은 불을 가까이 하여 몸을 따뜻하게 녹였다. 더구나 그들은 벌판에 살면서 양고기나 양젖으로 만든 유제품을 주식으로 하는 식생활이 습관이 되다보니 배가 차고 더부룩한 병에 잘 걸렸다. 그들은 당연히 배를 따뜻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법이 되었고 자연스럽게 뜬법이 발명되었다.

침뜸의학은 이러한 생명체의 자기 존립을 위한 생물학적인 특성을 바탕으로 생겨난 가장 원시적인 자연의술이다. 침은 아픈 곳을 누르고 도구를 이용해 자극하는 행위에서 시작된 것이다. 뜬은 불을 쬔면서 생겨난 원시 자연의술이다. 수천만년 전부터 아픈 곳을 따뜻하게 하고 불로 약한 화상을 입힘으로써 질병을 치료하며 발전하여 왔다. 이렇듯 침과 뜬은 동북아 지역에서 우리민족이 중심으로 되어 발전시켜온 대표

적인 자연치유법이다.

각 나라 침구과 전문영역으로 발전

동북아 지역 전통의학은 침구와 한약처방이 분리되어 전문과로 발전하여 왔다. 중국에서는 진나라부터 구비되어 오던 의관제도가 수당시대부터 완비되면서 침구는 전문과로 정비되었다. 침구사를 두기 시작한 것이다. 중국의학의 전문과 발전 과정을 보면 당(唐)대에 침구과, 의과, 안마과, 주금과로 4개과이던 것이 송(宋)대에는 9개과였다가 원(元)대에는 13개과로 구분이 되면서 점점 세분화 전문화 되어 갔다.

침구술이 꽃피었던 한국, 중국, 일본에서 한결같이 침뜸을 약제처방과 분리하여 발전시켜온 것은 침구술 고유의 특성 때문이다. 침 몇 자루와 약간의 뜬쑥, 그리고 시술자만 있으면 환자를 돌볼 수 있었고 비용이 저렴한 반면 효과는 대단히 탁월했다. 이러한 이유에서 침구술은 가난하고 병든 백성들의 의료수단으로 꾸준히 인기를 끌며 생활의술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막부시대 일본에선 의사가 지식인의 주류

통신사 맞이... 조선 침뜸술 큰 관심

조선과 일본 간의 문화교류는 주로 통신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임진왜란 후 통신사는 여러 차례 있었다.

조선통신사의 방일은 일본 막부당국은 물론이고 각 영주를 비롯하여, 의사, 무사, 정인, 농민 등 일반서민에 이르기까지 관심이 집중됐다. 일본과의 조선통신사 사신행차의 인물들 중에, 일본인들이 가장 중요시했던 그룹이 조선의 의원이었다. 사무라이가 지배하는 일본 지식층의 절대다수는 승려와 의원(醫員)이다. 유관(儒官)은 얼마 안 된다.

조선에서 통신사가 갔을 때 사무라이들이 접대를 할 수는 없었다. 그렇다고 속세의 인간사에 관한 일에 승려들이 나서기도 어려운 일이었다. 결국 조일문화교류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파트너는 의원이었다. 이들 의원들은 조선의 침술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일본 정부에서도 사신행차에 훌륭한 의사를 넣어주기를 요청했고 조정은 전의감에서 훌륭한 의원을 선발해 일본 사신행차에 넣어 주었다.

중국의학의 전문과 발전

침구과 (鍼灸科)	의과(醫科)										안마과 (按摩科)	주금과 (呪禁科)	
	大方脈科	小方脈科	雜醫科	正骨科	金瘡腫科	眼科	口齒科	風科	咽喉科	產科		祝由科	禁科
침구과 (鍼灸科)													

당(唐)대에 침구과, 의과, 안마과, 주금과로 4개과, 송(宋)대에는 9개과, 원(元)대에는 13개과가 되었지만, 침구과는 늘 별개의 과였고, 침구의(鍼灸醫)가 별도로 선발되어 배치됐다.